

이 자료는 2026년 4월 14일 朝刊부터	보도자료 (시흥상공회의소)	담당과	기업지원팀
		담당자	박민재 주무관
		전화번호	070-4485-9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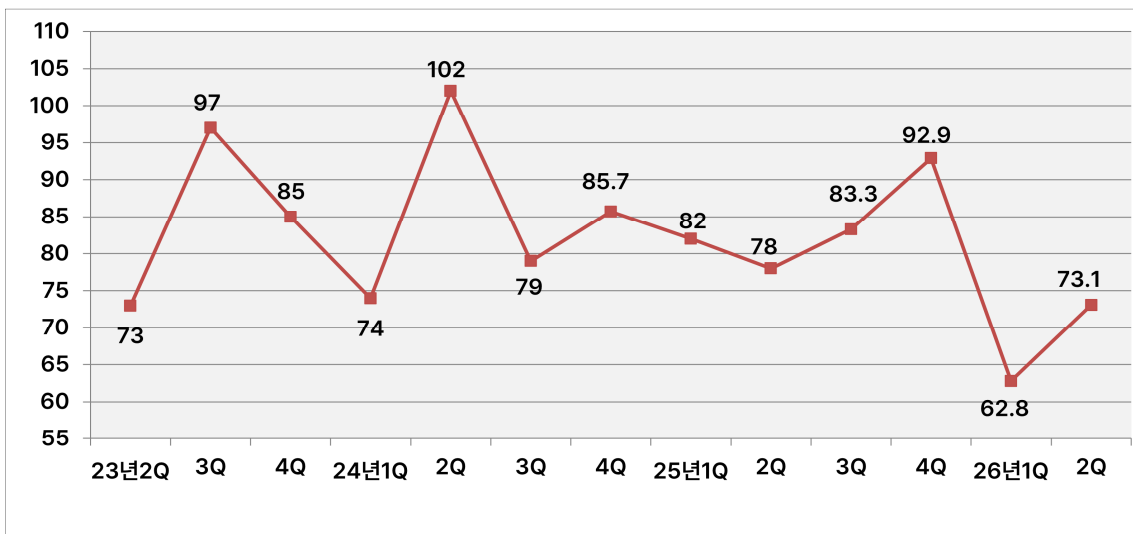
본 보도자료는 시흥상공회의소 인터넷(<http://shiheungcci.korcham.net>)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 목 : 2026년 2분기 시흥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조사

시흥상공회의소는 시흥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총 104개 제조업체가 응답하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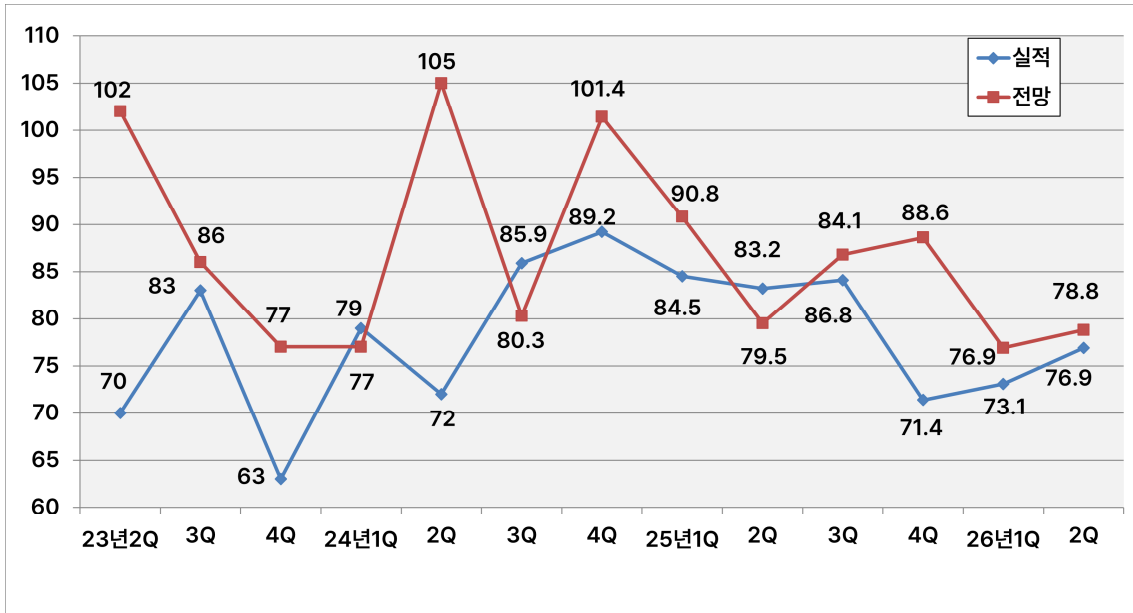
조사 결과, 시흥지역 제조업체의 2026년 2분기 경기전망지수는 73.1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분기 대비 상승했으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감경기 실적지수는 72.1로 조사되어 전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 제조업체 경기전망(BS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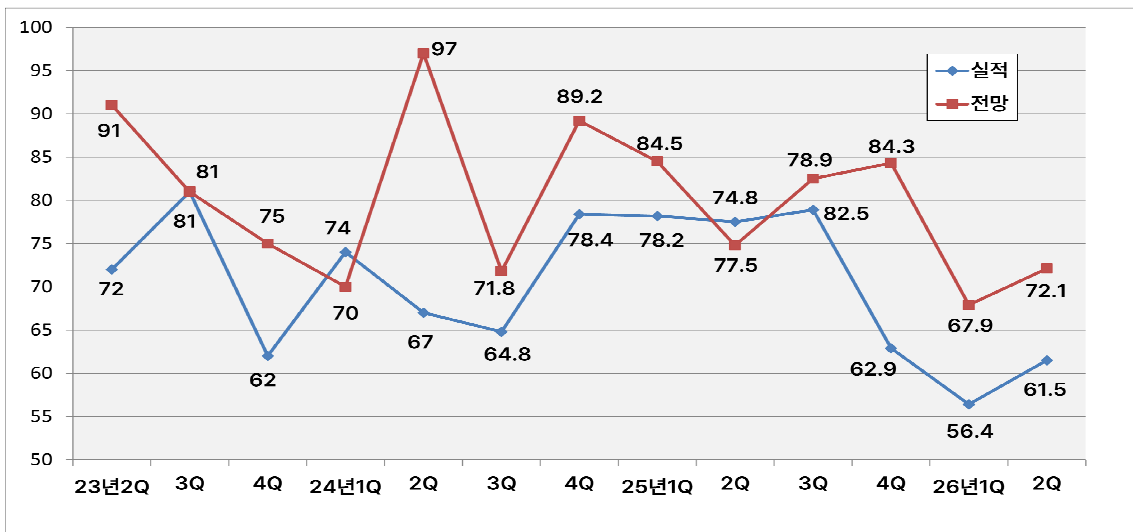
매출액을 살펴보면, 매출액 전망지수는 78.8로 조사되어 전분기 대비 상승했으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출액 실적지수는 76.9로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분기별 매출액 추이>



영업이익의 경우, 전망지수는 72.1, 실적지수는 61.5로 각각 집계되었으며, 두 지표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설비투자는 전망지수 85.6, 실적지수 78.8로 조사되었다. 설비투자 관련 지표는 전분기 대비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기준치(100)를 하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6년 2분기 시흥지역 기업경기전망 설비투자 비율>

구분	계	호전	불변	악화
실적	100	11.5	55.8	32.7
전망	100	14.4	56.7	28.8

자금사정은 전망지수 67.3, 실적지수 66.3으로 집계되었다. 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실적지수는 전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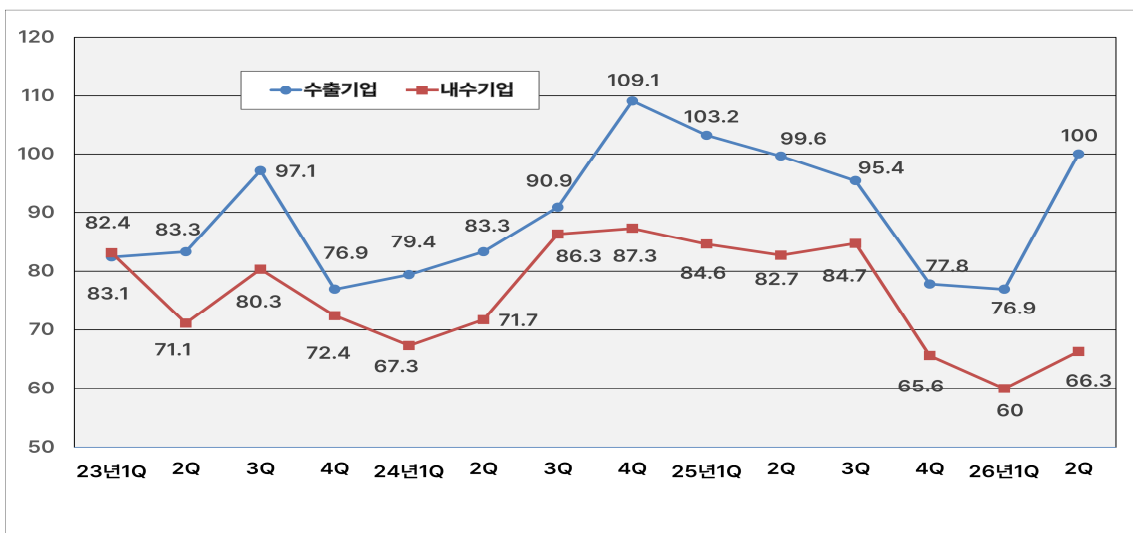
<2026년 2분기 시흥지역 기업경기전망 자금사정 비율>

구분	계	호전	불변	악화
실적	100	9.6	47.1	43.3
전망	100	12.5	42.3	45.2

기업규모별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종업원 300명 미만)의 2026년 2분기 경기전망지수는 73.1로 조사되어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경기 회복 기대가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10~29명 기업은 80.0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30~49명 기업은 54.5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대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100으로 조사되어 기준치에 도달하며 중소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기 전망을 보였다.

수출·내수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수출기업의 2026년 2분기 경기전망지수는 100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이며, 기준치(100)에 도달해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내수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66.3으로 조사되어 전분기 대비 상승했으나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하며 경기 회복 기대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지수를 살펴보면 수출기업은 85.7, 내수기업은 62.5로 집계되어 두 지수 모두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았으며, 특히 내수기업의 체감경기 수준이 수출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내수기업 전망치 추이>



업종별 경기전망을 보면, 기계·장비 업종의 2026년 2분기 경기전망지수는 94.7로 조사되어 전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지수는 89.5로 집계되어 전분기 대비 상승하며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동차·부품 업종의 경기전망지수는 41.2로 조사되어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적지수는 29.4로 집계되어 전분기 대비 감소하며 주요 업종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자제품통신 업종의 경우, 경기전망지수는 66.7로 조사되어 전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적지수는 50.0으로 집계되어 전분기 대비 감소한 수준을 보였다.

철강 업종의 경기전망지수는 71.4로 조사되어 전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지수 역시 71.4로 집계되어 전분기 대비 상승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71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전국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76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직전 분기 전망치인 77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2021년 3분기 이후 19분기 연속 기준치인 100을 하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조사에서 수출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70으로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내수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78로 전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기업경기 실적 및 전망지수 추이(전국)>

